

TV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신인급 드라마 주인공들, 톱스타 꿈꾼다



〈박해진〉



〈채정안〉

안방극장 주인공 자리는 요즘 춘추전국시대. '선덕여왕'과 '아이리스'를 제외하면 톱스타가...

이 때문에 '불만만 배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캐스팅이 신선하다', '새로운 맛이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 번에, 혹은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주인공을 꿰찬 이들은 저마다 이번 작품을 계기로 1류를 꿈꾸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KBS 2TV '열혈장사꾼'의 박해진과 채정안, SBS TV '미남이시네요'의 장근석과 박신혜, SBS TV '천만번 사랑해'의 이수경, SBS TV '천사의 유혹'의 이소연과 배수빈 등은 모두 차근차근 한 계단씩 밟아 마침내 주인공까지 된 경우가 다.

박해진은 '소문난 칠공주', '하늘만큼 땅만큼'을 거쳐 전작 '애연의 동쪽'에서 주인공으로 올라섰다. '열혈장사꾼'에서 마침내 주인공을 꿰찬 그는 몸을 던지는 액션 연기와 물이 오른 감정연기로 날이...

발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채정안 역시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연기를 재개한 뒤, '카인과 아벨'을 거쳐 이번에 '열혈장사꾼'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그는 그간 고수해온 긴 생머리를 포기하고 짧고 섹시한 컷트를 선보이며 과감한 변신을 선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남이시네요'의 장근석도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2인자 역할을 거쳐 주인공이 됐고, '천국의 계단'의 아역배우 출신인 박신혜도 '각두기'를 거쳐 미니시리즈 주인공을 맡았다.

'하늘이시여'로 데뷔한 이수경은 '머느리 전성시대'와 '대한민국 변호사'를 거쳐 '천만번 사랑해'에서 지난 때문에 대리모를 해야했던 고은님의 인생 역전을 그리고 있다.

이소연은 '봄의 왈츠', '우리집에 왜 왔니', '내 인생의 황금기'를 거쳐 조연급에 머물다 '천사의 유혹'에서 복수의 화신이 돼 한 남자의 집안을 몰락시키는 여주인공으로 발탁됐고, 배수빈 역시 '주몽', '바람의 화원', '찬란한 유산'을 거쳐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올라섰다.



〈장근석〉



〈이수경〉

포스코의 집안잔치. 개인전 결승 1국 (1~17). 포스코의 집안잔치. 개인전 결승 1국 (1~17). 포스코의 집안잔치. 개인전 결승 1국 (1~17). 포스코의 집안잔치. 개인전 결승 1국 (1~17).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음 9월 16일 辛亥). 3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 48년생 바깥엔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60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72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자 조심해라. 84년생 새 변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라라. 행운의 숫자: 02, 41.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Just send it C.O.D. (English to Korean), 2. どこですか 어디입니까 (Japanese to Korean), 3. 理想的対象 이상형 (Chinese to Korean), 4. 厚顔無恥 (후안무치) 두터울 후, 낮았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 (Chinese to Korean).